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도입... 선별 지원

코로나19 피해 도민 중 정부 지원대상 배제 기초생활수급자·일자리참여 어르신 등 제외 무급휴직자 대상 2~3회 지원하는 방안 추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이달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코로나19 피해도민을 지원해 줄 예정이나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도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과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는 24일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전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유에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당초 고소득자와 청소년에 대해 차등을 검토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고 이중차별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기장군도 당초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려는 입장을 변경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도는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으로 1835억원을 투입,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26피해 가구에 30만~5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전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여 가구 30만~50만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반해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는 도민 가운데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 만을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쿠폰지원 아동, 공공일자리 참여 어르신, 소상공인 등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도민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다.

소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

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2019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326억1369만원, 재해구호기금은 380억8380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들까지 지원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된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을 발굴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2~3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4월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스페인을 방문했던 코로나19 제주지역 다섯 번째 확진자가 24일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수능 연기 검토?... 아직 결정된 것 없어” 교육부, 본보와 통화서 “대입 일정 전반 점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1~2주 연기설이 제기되자 정부가 선을 긋고 나섰다. 코로나19 여파에 개학이 한 달 넘게 연기되며 수능 연기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 발표에 따라 수험생, 학부모 등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능 일정을 포

함해 수시, 정시 등 모든 부분에서 열린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수능을 치르거나 같은 달 26일 또는 12월 3일로 바꾸는 안을 교육부가 검토 중인데, 1~2주 미루는 안이 유력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수능을 연기할 경우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개학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대입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학사 일정에 맞춰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이 미뤄진 것은 1993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세 번의 해다.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2005년과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개최된 2010년,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2017년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 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스페인 1달 이상 체류한 뒤 지난 19일 제주 입도 20일 발열 증상 발현... 23일에 선별진료소 방문 편의점·택시·빨래방 이용... 지인 코로나 검사중

제주에서 다섯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스페인을 방문했던 20대 여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3시 15분쯤 스페인 방문 이력이 있는 A(20대 여성·경기도)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 체류한 뒤 18일 오후 국내에 입국했으며, 제주에는 김포발 티웨이 항공편을 타고 19일 낮 12시55분에 입도했다. 목적은 제주에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함이다.

이후 21일부터 발열 증상이 발현됐고, 23일 제주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 24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제주에 입도한 뒤 동선을 보면 19일 오후 2시13분~2시26분 점보택시를 이용해 제주 시내 지인 집으로 간 뒤 21일까지 별다른 외출 없이 지냈다. 이어 22일 오전 1시10분쯤 지인집 인근 빨래방을 방문했고, 오전 1시54분에는 GS25 제주월랑점을 찾았다. 오전 2시에는 택시를 타고 도두봉 해안도로를 도보로 산책했다. 낮 12시56분에는 GS25 연동신광점을 방문했다.

한편 A씨의 확진 판정으로 제주에서는 지난 4일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 이후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확인된 것이다. 현재 제주 1~4번 확진자는 지난 23일을 끝으로 모두 완치돼 일상으로 돌아갔다. 송은범기자

다음날인 23일 오전 11시 제주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에는 귀가해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4명(택시기사 2명·편의점 직원 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방문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또한 A씨의 지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24일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정부가 19일부터 시행한 ‘특별입국절차’ 하루 전(18일)에 입국하면서 코로나19 검사나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자기진단용 설치 등을 진행하지 않아도 됐다. 제주도는 24일야해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을 대상으로 >건강기초조사서(성명·연락처·방문국가) 작성 및 보건소 공유 >발열검사 >2주간 능동감시 등을 실시하는 ‘특별입도절차’에 돌입해 A씨가 입도(19일)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A씨의 확진 판정으로 제주에서는 지난 4일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 이후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확인된 것이다. 현재 제주 1~4번 확진자는 지난 23일을 끝으로 모두 완치돼 일상으로 돌아갔다. 송은범기자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TF팀’회의를 개최해 부지매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18년 하반기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2019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TF팀을 구성해 부지매입 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내 총사업비 95억원(추정)을 투입해 연면적 2500㎡, 지상3층 규모로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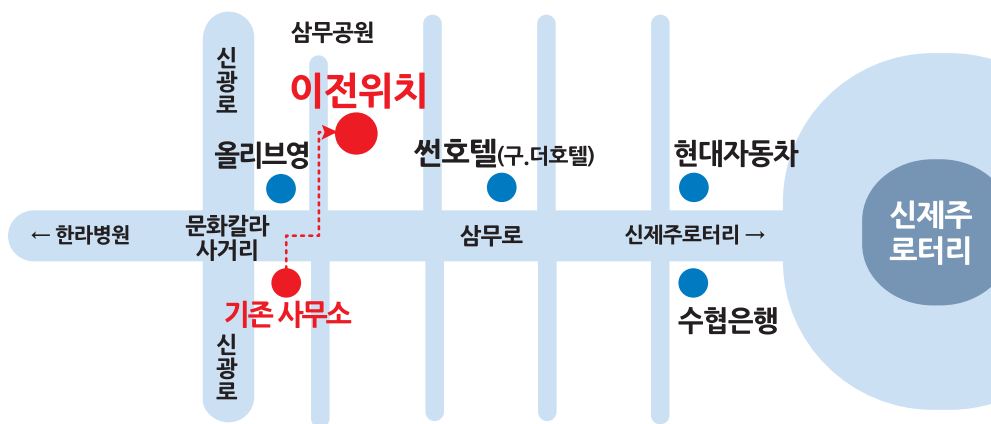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속적인 TF팀 회의 개최 등을 통한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 종합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건립을 위해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시농협 신제주지점 이전 안내

◎ **영업개시일** : 2020. 3. 30. (월)

◎ **장 소** : 제주시삼무로 39 Tel. 746-0231
 (舊, 신제주지점 맞은 편)



이전주소 | 제주시 삼무로 39

코로나19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하여 청정제주를 반드시 만들어 갑시다.

제주시농협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정부관계자 및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쾌적하고 밝은 환경에서 조합원님과 고객님의 더 큰 행복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농협

조합장 **고 봉 주** 지점장 **강 옥 화**

《함께하는 행복세상 2030》 “경청(傾聽)과 신의(信義)를 더해 농심(農心)을 채워나가는 제주시농협” 이 되겠습니다.